



진상을 찾을 지어다

천지간은 망망한데
세인은 어 데로 갈가
미혹 속에서 길을 모르는데
지남은 진상에 있네
빈부는 마찬가지로
큰 난은 피할 길 없는데
그물에 열린 곳 있으니
빨리빨리 진상을 찾을 지어다



진상을 찾을 지어다

천지간은 망망한데
세인은 어 데로 갈가
미혹 속에서 길을 모르는데
지남은 진상에 있네
빈부는 마찬가지로
큰 난은 피할 길 없는데
그물에 열린 곳 있으니
빨리빨리 진상을 찾을 지어다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글자를 알려드립니다

真言真情
寄语乡亲
声声呼唤
快找真相

제
16
기



당신에게 생명을 구하는
몇글자를 알려드립니다

真言真情
寄语乡亲
声声呼唤
快找真相

제
16
기



목 록

진언을 넘하니 골결핵이 사라지다	3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우스	5
간 종양이 소실되다	7
대법 구결이 어린 손자를 구하다	9
위험에 부딪쳐도 전화 위복하다.....	11
생질의 몸에서 발생한 기적	13
대법이 나와 나의 가족을 구하였다.....	15
근육덩어리가 사라지다	18
신기하다! 뼈가 어쩌면 이렇게 잘 자랐는가? ...	20
안사돈의 골 암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23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다	26
탈당 탈단 탈대 방법.....	27
진상을 찾을 지어다.....	28

명혜 소책자는 자비로 인쇄하니 읽고서
널리 전하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목 록

진언을 넘하니 골결핵이 사라지다	3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우스	5
간 종양이 소실되다	7
대법 구결이 어린 손자를 구하다	9
위험에 부딪쳐도 전화 위복하다.....	11
생질의 몸에서 발생한 기적	13
대법이 나와 나의 가족을 구하였다.....	15
근육덩어리가 사라지다	18
신기하다! 뼈가 어쩌면 이렇게 잘 자랐는가? ...	20
안사돈의 골 암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23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다	26
탈당 탈단 탈대 방법.....	27
진상을 찾을 지어다.....	28

명혜 소책자는 자비로 인쇄하니 읽고서
널리 전하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

탈당탈단탈대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전자우편으로 성명 tuidang@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dajiyuan.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888-892-8757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해외메일로 d_ip@earthlink.net 에 빈 메일을
보내면 10 분내에 3 개의 동태망 사이트 주소를 받을 수
있으며 클릭하면 안전하게 인터넷에 오를 수 있다. 빨리
바깥의 진실한 세계를 보시라!

탈당탈단탈대방법

(가명, 필명도 마찬가지로 유효함)

- *전자우편으로 성명 tuidang@epochtimes.com
- * 동태망 인터넷으로 연결
<http://tuidang.dajiyuan.com>
- * 탈당전화 : 001-416-361-9895,
001-888-892-8757
- * 탈당팩스 : 001-702-248-0599,
001-510-372-0176
- * 인터넷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은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인다.

제시 : 국제전화가 직접 통하지 않는 대륙인사들은
탈당 전화를 걸때 IP 전화로 해야 한다. (왕통[网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하고 전신[电信]은 먼저 17969 를
입력하여야 하며 철통[铁通]은 먼저 17991 를 입력해야
한다.) 핸드폰 IP 전화 (중국어동은 먼저 17951 를
입력해야 하고 련통은 먼저 17911 를 입력해야 하며
시티폰[小灵通]은 먼저 17909 를 입력해야 한다.)

해외메일로 d_ip@earthlink.net 에 빈 메일을
보내면 10 분내에 3 개의 동태망 사이트 주소를 받을 수
있으며 클릭하면 안전하게 인터넷에 오를 수 있다. 빨리
바깥의 진실한 세계를 보시라!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다

나의 년로하신 어머니는 금년에 80 세이다. 작년에 갑자기 심근경색에 걸렸는데 병이 위독하여 오늘 내일 돌아갈지 모르는 처지였고 병원에서도 병이 위독하다는 통지서를 내렸다. 남방에서 급급히 달려온 녀동생 (대법제자)은 어머니의 귀 전에 대고 어머니더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넘하라고 하면서 대법 진상 호신부를 걸어주었다. 어머니가 그대로 했더니 과연 기적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순간, 눈이 밝고 목소리가 우렁찼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나의 가족들은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이때로부터 로인은 《전법륜》을 읽기 시작하였다.

지금 로인의 신체는 아주 건강하며 이미 《전법륜》을 십여 번 읽었다. 몸과 마음에 모두 혜택을 받은 그녀는 충심으로 대법과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다

나의 년로하신 어머니는 금년에 80 세이다. 작년에 갑자기 심근경색에 걸렸는데 병이 위독하여 오늘 내일 돌아갈지 모르는 처지였고 병원에서도 병이 위독하다는 통지서를 내렸다. 남방에서 급급히 달려온 녀동생 (대법제자)은 어머니의 귀 전에 대고 어머니더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넘하라고 하면서 대법 진상 호신부를 걸어주었다. 어머니가 그대로 했더니 과연 기적이 나타났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순간, 눈이 밝고 목소리가 우렁찼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나의 가족들은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놀람을 금치 못하였다. 이때로부터 로인은 《전법륜》을 읽기 시작하였다.

지금 로인의 신체는 아주 건강하며 이미 《전법륜》을 십여 번 읽었다. 몸과 마음에 모두 혜택을 받은 그녀는 충심으로 대법과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진언을 넘하니 골결핵이 사라지다

나의 어머니는 금년에 83 세이다. 일찍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8 천여원의 의료비를 팔았지만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다. 2006 년 9 월, 옛 병이 도리어 골결핵으로 전이되었다. 가슴등뼈가 썩어 세 개의 구멍이 났는데 극심한 고통은 로인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였다. 로인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는 로인을 하북의 화원구로부터 북경관청결핵병원으로 전이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진단을 마친 의사는 병세가 아주 엄중하고 년세가 많은데다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큰 병이므로 3 급 간호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의 오빠, 언니, 남동생, 녀동생이 룬번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자 모두 전염될까 두려워하면서 간호하기 꺼려하였다. 나는 《나는 수련인이므로 괜찮아요. 저항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간호할게요.》 하였다.

나는 어머니께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가르쳤다. 병세가 엄중하여 어머니는 때로 의식



진언을 넘하니 골결핵이 사라지다

나의 어머니는 금년에 83 세이다. 일찍이 폐결핵에 걸렸는데 8 천여원의 의료비를 팔았지만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다. 2006 년 9 월, 옛 병이 도리어 골결핵으로 전이되었다. 가슴등뼈가 썩어 세 개의 구멍이 났는데 극심한 고통은 로인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였다. 로인은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는 로인을 하북의 화원구로부터 북경관청결핵병원으로 전이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진단을 마친 의사는 병세가 아주 엄중하고 년세가 많은데다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큰 병이므로 3 급 간호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의 오빠, 언니, 남동생, 녀동생이 룬번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자 모두 전염될까 두려워하면서 간호하기 꺼려하였다. 나는 《나는 수련인이므로 괜찮아요. 저항력이 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간호할게요.》 하였다.

나는 어머니께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라고 가르쳤다. 병세가 엄중하여 어머니는 때로 의식



이 똑똑하지 못하여 읽는 것을 잊곤 하였다. 병원에서 한달 동안 정맥주사를 맞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것을 본 나는 아예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놓고 보살폈다.

나는 반복적으로 어머니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도록 가르쳤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있었으며 사람도 점차 정신이 났다. 그때로부터 그녀는 나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고 날마다 부단히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더욱이 자신도 파룬궁을 배우겠다고 요구하였다. 나는 기쁜 나머지 《좋아요! 배우겠으면 꼭 견지하고 견정하고 동요가 없으면 사부님께서 신체를 청리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아주 괴롭겠지만 괴롭다고 동요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돼요.》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꼭 배우고련마하겠다. 아픈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련공을 안 하더라도 이 병이 나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견결하게 더는 약을 사오지 말라고 하면서 파룬궁을 배우는데 전념하겠다고 하였다.

하루는 어머니의 배가 갑자기 꺼져 들어갔다. 배가 텅



이 똑똑하지 못하여 읽는 것을 잊곤 하였다. 병원에서 한달 동안 정맥주사를 맞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것을 본 나는 아예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놓고 보살폈다.

나는 반복적으로 어머니에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도록 가르쳤다. 그 후부터 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있었으며 사람도 점차 정신이 났다. 그때로부터 그녀는 나의 말을 더욱 믿게 되었고 날마다 부단히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더욱이 자신도 파룬궁을 배우겠다고 요구하였다. 나는 기쁜 나머지 《좋아요! 배우겠으면 꼭 견지하고 견정하고 동요가 없으면 사부님께서 신체를 청리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아주 괴롭겠지만 괴롭다고 동요하거나 포기해서는 안돼요.》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꼭 배우고련마하겠다. 아픈 것도 두렵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련공을 안 하더라도 이 병이 나의 목숨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견결하게 더는 약을 사오지 말라고 하면서 파룬궁을 배우는데 전념하겠다고 하였다.

하루는 어머니의 배가 갑자기 꺼져 들어갔다. 배가 텅



당, 단, 대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념하는 것이예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어조로 물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에서 해탈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념원이 담겨있었다. 나는 말하였다. 《믿지 못하겠으면 시험해보세요.》 그녀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탈퇴하고 읽겠어요.》라고 하였다.

이렇게 안사돈은 끝내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고 짐승의 인기를 지워버렸으며 진상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는데 신체상황은 날이 다르게 좋아졌다. 최근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각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다.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그녀의 골암이 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안사돈의 온 가족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가족에서 진실한 병 정황을 안사돈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녀는 격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재삼 대법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그녀는 또 말하였다. 《나는 이후에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를 념하겠다!》 그녀는 또 령감과 손자도 《파룬따파는 좋다》를 념하라고 하였다.



당, 단, 대조직에서 탈퇴하고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념하는 것이예요.》 그녀는 반신반의하는 어조로 물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에서 해탈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념원이 담겨있었다. 나는 말하였다. 《믿지 못하겠으면 시험해보세요.》 그녀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탈퇴하고 읽겠어요.》라고 하였다.

이렇게 안사돈은 끝내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고 짐승의 인기를 지워버렸으며 진상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는데 신체상황은 날이 다르게 좋아졌다. 최근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각 검사 수치가 모두 정상이었다.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그녀의 골암이 간데없이 사라진 것이다. 안사돈의 온 가족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가족에서 진실한 병 정황을 안사돈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녀는 격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재삼 대법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다. 그녀는 또 말하였다. 《나는 이후에 날마다 〈파룬따파는 좋다〉를 념하겠다!》 그녀는 또 령감과 손자도 《파룬따파는 좋다》를 념하라고 하였다.



짜를 조작하는 사회에서 생각 밖의 위험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위험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평안하게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체 위험을 대피할 수 있다.

나의 안사돈은 금년에 73 세인데 지금 이미 퇴직하였다. 안사돈은 13 살에 사업에 참가하여 16 살부터 보관원으로 일하였다. 안팎으로 화물을 싣고 부리우면서 어려서부터 종로동에 종사하다 보니 신체에 많은 병근을 남았다. 근 몇 년래, 그녀는 경상적으로 다리가 아파 고통스러웠으며 길을 걸을 수 없었다. 2007 년, 안사돈은 병원에 가서 신체를 검사하였는데 골암이었다. 아이들은 이맛살을 펴지 못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더구나 로인에게 실정을 토로하지 못하고 다만 주사를 맞히고 약을 대접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켰다.

2008 년 5 월, 안사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내가 그녀를 보러 갔을 때,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죽지 못해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것은 안사돈은 중공 매체 거짓말의 독해를 깊이 받아 대법의 진상을 접수하지 않고 전에 진상 자료를 소각해 버린 적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사돈도 지금 자신의 병이 날마다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당의

짜를 조작하는 사회에서 생각 밖의 위험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위험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평안하게 주위에서 발생하는 일체 위험을 대피할 수 있다.

나의 안사돈은 금년에 73 세인데 지금 이미 퇴직하였다. 안사돈은 13 살에 사업에 참가하여 16 살부터 보관원으로 일하였다. 안팎으로 화물을 싣고 부리우면서 어려서부터 종로동에 종사하다 보니 신체에 많은 병근을 남았다. 근 몇 년래, 그녀는 경상적으로 다리가 아파 고통스러웠으며 길을 걸을 수 없었다. 2007 년, 안사돈은 병원에 가서 신체를 검사하였는데 골암이었다. 아이들은 이맛살을 펴지 못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더구나 로인에게 실정을 토로하지 못하고 다만 주사를 맞히고 약을 대접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켰다.

2008 년 5 월, 안사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내가 그녀를 보러 갔을 때,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죽지 못해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그것은 안사돈은 중공 매체 거짓말의 독해를 깊이 받아 대법의 진상을 접수하지 않고 전에 진상 자료를 소각해 버린 적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사돈도 지금 자신의 병이 날마다 가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당의

빈 것 같아 자꾸 음식이 당긴다고 하였다. 나는 어머니께 말하였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사부님께서 어머니의 신체를 철저하게 청리해 주셨어요.》

이때로부터 어머니의 신체는 날이 다르게 좋아졌고 2007 년 상 반년에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 기적은 이웃들을 깜짝 놀래 왔으며 집집마다 다 아는 사실로 되었다.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우스

흑룡강 빈현에는 이러한 중년부부가 살고 있다. 부부는 원래 모두 한 단위에 출근하고 있었다. 후에 단위가 파산되면서 부부는 기동차 수리부를 옅히고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들의 원래 단위에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로년 녀동료가 있었다. 몇 년이래, 이 로동료는 여러 번이나 그들에게 진상을 이야기 하고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분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아내는 이 로동료의 말을 믿고 아들과 함께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로동료의 말을 반신반의 하면서 처음에는 삼퇴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가려워 동의한 것이었다.

2007 년, 부부는 수리부의 영업이 잘되지 않아

빈 것 같아 자꾸 음식이 당긴다고 하였다. 나는 어머니께 말하였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사부님께서 어머니의 신체를 철저하게 청리해 주셨어요.》

이때로부터 어머니의 신체는 날이 다르게 좋아졌고 2007 년 상 반년에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 기적은 이웃들을 깜짝 놀래 왔으며 집집마다 다 아는 사실로 되었다.

광풍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우스

흑룡강 빈현에는 이러한 중년부부가 살고 있다. 부부는 원래 모두 한 단위에 출근하고 있었다. 후에 단위가 파산되면서 부부는 기동차 수리부를 옅히고 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들의 원래 단위에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로년 녀동료가 있었다. 몇 년이래, 이 로동료는 여러 번이나 그들에게 진상을 이야기 하고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경상적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분복을 받는다고 하였다. 아내는 이 로동료의 말을 믿고 아들과 함께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로동료의 말을 반신반의 하면서 처음에는 삼퇴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머리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가려워 동의한 것이었다.

2007 년, 부부는 수리부의 영업이 잘되지 않아

변경지구에 가 열 개의 남새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남새장사를 시작하였다. 그 곳에는 땅이 많아 내지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남새를 심었다. 2008년 여름의 어느 하루, 날씨가 갑자기 변하더니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뒤덮이고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바람이 너무 세여 방문도 열기 어려웠다. 방에 갇힌 사람들은 마음이 바질바질 타 들어 갔다. 폭풍우가 하우스를 번저놓을까 두려웠지만 집에서 나갈 수 없었으므로 조금해도 별수 없었다. 이 관건적인 시각에 아내는 로동료의 말이 생각나 재빨리 대법의 사부님께 하우스를 보호해달라고 청을 드리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비바람이 멎은 후, 사람들은 분분히 달려나갔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눈앞의 광경에 멍해졌다. 모든 하우스가 넘어졌지만 유독 그녀 집의 열 개의 하우스만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가사의하게 생각하였다. 한 사람이 남주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복이 있군요. 이 바람이 하필 당신 것만 피해 간단 말인가요?》 그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다. 《나는 신이 보호



변경지구에 가 열 개의 남새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남새장사를 시작하였다. 그 곳에는 땅이 많아 내지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남새를 심었다. 2008년 여름의 어느 하루, 날씨가 갑자기 변하더니 순식간에 검은 구름이 뒤덮이고 광풍이 몰아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바람이 너무 세여 방문도 열기 어려웠다. 방에 갇힌 사람들은 마음이 바질바질 타 들어 갔다. 폭풍우가 하우스를 번저놓을까 두려웠지만 집에서 나갈 수 없었으므로 조금해도 별수 없었다. 이 관건적인 시각에 아내는 로동료의 말이 생각나 재빨리 대법의 사부님께 하우스를 보호해달라고 청을 드리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비바람이 멎은 후, 사람들은 분분히 달려나갔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눈앞의 광경에 멍해졌다. 모든 하우스가 넘어졌지만 유독 그녀 집의 열 개의 하우스만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가사의하게 생각하였다. 한 사람이 남주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정말 복이 있군요. 이 바람이 하필 당신 것만 피해 간단 말인가요?》 그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대답했다. 《나는 신이 보호



게 잘 자랐습니까? 철 못과 뼈가 완전히 붙었습니다. 만일 꺼내지 못하면 철 못 주위의 작은 뼈들을 부수고 철 못을 꺼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자리를 다시 봉합해야 합니다.》 문제는 좀 엄중하여 가족들이 사인을 해서야 수술은 계속 진행되었다.

당시 운하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한번 또 한번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었다. 결과 다시 수술을 시작하여 아주 순리롭게 세대의 철 못을 빼내었다.

수술을 마친 후, 운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제 금방 제가 무엇을 념했는지 맞춰보세요. 저는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좋다, 대법 사부님께서 저를 보우해주십시오!〉 라고 념했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그녀의 남편은 기뻐하며 나에게 이 과정을 들려주었다.

안사돈의 골암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나는 산동 위해의 대법제자이다. 나는 위해의 고향친지들에게 대법이 나의 안사돈의 몸에서 발생한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희망하건대 고향친지들이 대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비를 똑똑히 분별하기 바란다. 특별히 현재 중공이 일관적으로 가

게 잘 자랐습니까? 철 못과 뼈가 완전히 붙었습니다. 만일 꺼내지 못하면 철 못 주위의 작은 뼈들을 부수고 철 못을 꺼내야 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자리를 다시 봉합해야 합니다.》 문제는 좀 엄중하여 가족들이 사인을 해서야 수술은 계속 진행되었다.

당시 운하는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한번 또 한번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었다. 결과 다시 수술을 시작하여 아주 순리롭게 세대의 철 못을 빼내었다.

수술을 마친 후, 운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이제 금방 제가 무엇을 념했는지 맞춰보세요. 저는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좋다, 대법 사부님께서 저를 보우해주십시오!〉 라고 념했어요!》

오늘 사무실에서 그녀의 남편은 기뻐하며 나에게 이 과정을 들려주었다.

안사돈의 골암이 간데없이 사라지다

나는 산동 위해의 대법제자이다. 나는 위해의 고향친지들에게 대법이 나의 안사돈의 몸에서 발생한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희망하건대 고향친지들이 대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파룬따파는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비를 똑똑히 분별하기 바란다. 특별히 현재 중공이 일관적으로 가

나는 《회복이 참 잘 됐군요. 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하고 말하였다. 그녀는 《그래요. 병실에는 저보다 먼저 입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출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당시 낫지 못할 가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좋다> 고 념하였어요.》 라고 하였다. 나는 《잘했어요. <파룬따파는 좋다> 를 념하면 분복을 받아요.》 하면서 나의 오빠가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혜망에 발표된 《구원받은 오빠도 사람을 구하다》가 바로 나의 오빠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파룬따파는 좋다》를 념하면 반드시 분복이 있다는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게 되었다.

운하는 수술을 받은 지 이미 1년이 되었다.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세대의 철 못을 빼내야 했다. 어제 (10월 29일), 그녀는 철 못을 빼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은 국부마취였다. 수술이 진행된지 얼마 안되어 웬일인지 의사는 수술을 정지하였다. 운하가 물었다: 《웬일이세요?》 의사가 말하였다. 《집게가 부러졌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좋은 곰탕을 먹었었기에 뼈가 이렇

22



나는 《회복이 참 잘 됐군요. 상한 사람 같지 않아요.》 하고 말하였다. 그녀는 《그래요. 병실에는 저보다 먼저 입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출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당시 낫지 못할 가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좋다> 고 념하였어요.》 라고 하였다. 나는 《잘했어요. <파룬따파는 좋다> 를 념하면 분복을 받아요.》 하면서 나의 오빠가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혜망에 발표된 《구원받은 오빠도 사람을 구하다》가 바로 나의 오빠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파룬따파는 좋다》를 념하면 반드시 분복이 있다는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게 되었다.

운하는 수술을 받은 지 이미 1년이 되었다.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세대의 철 못을 빼내야 했다. 어제 (10월 29일), 그녀는 철 못을 빼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은 국부마취였다. 수술이 진행된지 얼마 안되어 웬일인지 의사는 수술을 정지하였다. 운하가 물었다: 《웬일이세요?》 의사가 말하였다. 《집게가 부러졌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좋은 곰탕을 먹었었기에 뼈가 이렇

22



하오.》 나중에 아내는 관건적인 시각에 자신이 《대법이 좋다》를 묵념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남편은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부터 탄복하면서 감개무량하여 말하였다. 《예전에 나는 대법의 위력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겠소. 이 열 개의 하우스가 견증이 아니오? 대법의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의 사부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부부는 빈현으로 돌아가 자신이 친히 겪은 경력을 모든 친척들에게 들려주었다. 친척들은 놀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가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부부는 또 특별히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준 로동료를 찾아가 공경스럽게 리대사님의 법신상에 향을 올렸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도 파룬궁을 수련하겠습니다. 리대사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표시하였다.

간 종양이 소실되다

나는 왕흥국이라 부르는데 금년에 48 세이며 산동사람이다. 2007 년의 어느 하루, 한창 일을 하고 있던 나는 갑자기 위의 통증이 심해졌다. 의사는 진단을 거쳐 위병으로 오진하였다. 한달 동안 치료 받았지만 병은 아무런 호전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중해졌다. 동영 시립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7

하오.》 나중에 아내는 관건적인 시각에 자신이 《대법이 좋다》를 묵념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남편은 듣고 나서 마음속으로부터 탄복하면서 감개무량하여 말하였다. 《예전에 나는 대법의 위력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믿겠소. 이 열 개의 하우스가 견증이 아니오? 대법의 사부님 감사합니다! 대법의 사부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부부는 빈현으로 돌아가 자신이 친히 겪은 경력을 모든 친척들에게 들려주었다. 친척들은 놀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전부가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였다. 부부는 또 특별히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준 로동료를 찾아가 공경스럽게 리대사님의 법신상에 향을 올렸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도 파룬궁을 수련하겠습니다. 리대사님께서 저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표시하였다.

간 종양이 소실되다

나는 왕흥국이라 부르는데 금년에 48 세이며 산동사람이다. 2007 년의 어느 하루, 한창 일을 하고 있던 나는 갑자기 위의 통증이 심해졌다. 의사는 진단을 거쳐 위병으로 오진하였다. 한달 동안 치료 받았지만 병은 아무런 호전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중해졌다. 동영 시립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7

간에 커다란 종류가 자랐는데 사발만 했다. 나는 또 제남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사지가 무력해지면서 나중엔 인사불성이 되었다. 가족은 온종일 눈물만 흘렸다. 간에 이렇게 큰 종양이 자랐다는 것은 사형판결을 받은 병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의 형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그녀가 병원으로 보러 왔다. 그녀는 《빨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어요. 들었어요? 읽을 힘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성심으로 묵념해도 효과가 있어요.》 나는 혼미 중에서 형수의 말을 알아듣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며칠이 안되어 나는 눈을 뜰 수 있었으며 차츰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앓을 수가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초상적이다! 나의 병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온몸에 병이 없어 즐거우다. 나는 충심으로 두 번째 생명을 주신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꼭 견정하게 파룬따파를 수련할 것이다!



간에 커다란 종류가 자랐는데 사발만 했다. 나는 또 제남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사지가 무력해지면서 나중엔 인사불성이 되었다. 가족은 온종일 눈물만 흘렸다. 간에 이렇게 큰 종양이 자랐다는 것은 사형판결을 받은 병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의 형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그녀가 병원으로 보러 왔다. 그녀는 《빨리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어요. 들었어요? 읽을 힘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성심으로 묵념해도 효과가 있어요.》 나는 혼미 중에서 형수의 말을 알아듣고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며칠이 안되어 나는 눈을 뜰 수 있었으며 차츰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앓을 수가 있었고 걸을 수도 있었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초상적이다! 나의 병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온몸에 병이 없어 즐거우다. 나는 충심으로 두 번째 생명을 주신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해주신 대법의 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꼭 견정하게 파룬따파를 수련할 것이다!



운하가 차에 올라탄 후, 굽인돌이를 도는 곳에서 차가 단번에 운하를 운전실 밖으로 내던졌다. 당시 운하는 세멘트 바닥에 떨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고 피를 흘렸으며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대퇴골 등 여러 곳이 골절되었고 한곳은 분쇄성 골절이었다. 그녀는 당장에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운하의 남편은 회사의 부총재로서 나와 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본다. 하여 나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다. 인사말을 나눈 후, 나는 가져간 호신부를 그녀에게 주면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넘하라고 부탁하였다. 또 《파룬따파는 좋다》를 넘하여 난에 부딪쳐도 위험에서 벗어난 실례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열심히 듣고 나서 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운하의 수술은 아주 순리로웠고 회복도 아주 빨라 한 달이 지나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완쾌된 후, 그녀는 또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어느 하루, 나는 마침 길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 바람이 일고 얼굴은 희고 살이 올랐으며 상하기 전보다 더 정신이 났다.



운하가 차에 올라탄 후, 굽인돌이를 도는 곳에서 차가 단번에 운하를 운전실 밖으로 내던졌다. 당시 운하는 세멘트 바닥에 떨어져 머리에 외상을 입고 피를 흘렸으며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대퇴골 등 여러 곳이 골절되었고 한곳은 분쇄성 골절이었다. 그녀는 당장에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운하의 남편은 회사의 부총재로서 나와 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본다. 하여 나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갔다. 인사말을 나눈 후, 나는 가져간 호신부를 그녀에게 주면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넘하라고 부탁하였다. 또 《파룬따파는 좋다》를 넘하여 난에 부딪쳐도 위험에서 벗어난 실례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녀는 열심히 듣고 나서 나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운하의 수술은 아주 순리로웠고 회복도 아주 빨라 한 달이 지나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완쾌된 후, 그녀는 또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어느 하루, 나는 마침 길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 바람이 일고 얼굴은 희고 살이 올랐으며 상하기 전보다 더 정신이 났다.



면서 걷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걷게 되었다. 나는 격동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합장하고 파룬궁사부님께 감사를 드렸다.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며 나더러 정상적인 사람과 같게 해 주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발에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잠을 잘 때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어느 쪽으로 누워도 다 된다. 다시는 앞드려 자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나와 남편은 날마다 구자 진언을 읽는다. 그 누가 우리 앞에서 대법의 나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는다. 대법에 감사를 드리며 리홍지 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기하다! 뼈가 어쩌면 이렇게 잘 자랐는가?

운하(云霞)는 우리 회사 부속의 분공장 공장장이다. 작년 9 월의 어느 날, 운하는 총부 판공실로 사무를 보러 가다가 마침 회사의 소방차가 공장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보조 운전사 좌석에 올라탔다. 이 소방차는 시간이 오래 된지라 보수기간이 언녕 지났고 오른쪽 차문은 이미 고장나 수리하는 사람도 없고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 그런대로 공장 구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면서 걷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걷게 되었다. 나는 격동되어 눈물을 흘리면서 두 손을 합장하고 파룬궁사부님께 감사를 드렸다. 사부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으며 나더러 정상적인 사람과 같게 해 주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발에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잠을 잘 때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어느 쪽으로 누워도 다 된다. 다시는 앞드려 자지 않아도 된다.

지금 나와 남편은 날마다 구자 진언을 읽는다. 그 누가 우리 앞에서 대법의 나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있지 않는다. 대법에 감사를 드리며 리홍지 대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신기하다! 뼈가 어쩌면 이렇게 잘 자랐는가?

운하(云霞)는 우리 회사 부속의 분공장 공장장이다. 작년 9 월의 어느 날, 운하는 총부 판공실로 사무를 보러 가다가 마침 회사의 소방차가 공장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보조 운전사 좌석에 올라탔다. 이 소방차는 시간이 오래 된지라 보수기간이 언녕 지났고 오른쪽 차문은 이미 고장나 수리하는 사람도 없고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 그런대로 공장 구역 내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대법 구결이 어린 손자를 구하다

경향대운하변에 자리잡고 있는 창주는 땅이 영험하여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며 민풍이 순박하다. 창주는 예로부터 협객과 의리 있는 인사들을 많이 배출했다. 오늘 성실하고 열성적인 정의(가명)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으로 또다시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실증하였다.

정의는 사람됨됨이가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남을 돕기 즐기고 수리기술에 조예가 깊은 분이다. 그는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를 적당하게 받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들 일가족은 모두 선량하다. 화목한 집안에는 자손이 번창한데 그 중 귀여운 어린 손자는 더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이다. 어느 한번 어린 손자가 저녁에 그들 내외와 같이 잤다. 밤중에 어찌된 일인지 어린 손자가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아이는 한번 큰 소리로 울더니 동정이 없어졌다. 늙은 양주가 재빨리 일어나 불을 켜보니 아이는 낮 빛이 창백하고 이미 호흡을 멈추었다. 아내는 이 정경을 보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 위급한 시각 정의는 파룬따파를 생각하고 아이를 안고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좋다!》 몇 번 외쳤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대법 구결이 어린 손자를 구하다

경향대운하변에 자리잡고 있는 창주는 땅이 영험하여 걸출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며 민풍이 순박하다. 창주는 예로부터 협객과 의리 있는 인사들을 많이 배출했다. 오늘 성실하고 열성적인 정의(가명)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으로 또다시 파룬따파의 신기함을 실증하였다.

정의는 사람됨됨이가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남을 돕기 즐기고 수리기술에 조예가 깊은 분이다. 그는 기술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를 적당하게 받아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그들 일가족은 모두 선량하다. 화목한 집안에는 자손이 번창한데 그 중 귀여운 어린 손자는 더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염둥이이다. 어느 한번 어린 손자가 저녁에 그들 내외와 같이 잤다. 밤중에 어찌된 일인지 어린 손자가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아이는 한번 큰 소리로 울더니 동정이 없어졌다. 늙은 양주가 재빨리 일어나 불을 켜보니 아이는 낮 빛이 창백하고 이미 호흡을 멈추었다. 아내는 이 정경을 보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 위급한 시각 정의는 파룬따파를 생각하고 아이를 안고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파룬따파는 좋다!》 몇 번 외쳤더니 기적이 나타났다

다. 어린 손자가 《와》 하고 울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홍조가 비졌다. 얼마 안 지나 어린 손자는 마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즐겁게 뛰어다녔다. 늙은 양주는 놀랍고도 기뻐으며 몹시 격동되었다. 그들은 내심으로부터 어린 손자를 구해준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렸다.



또 어느 한번, 야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린 손자가 급성후두염에 걸렸는데숨이 막혀 얼굴은 자줏빛이 나고 이제 곧 숨을 들이쉴 것 같지 못하여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정의는 듣고 나서 인츰 아들의 집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정의는 또다시 파룬따파를 생각하고 길을 걸으면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넘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대법 사부님께 자신의 어린 손자를 구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아들의 집에 이르자 며느리는 아이가 갑자기 울지도 않고 숨도 가쁘지 않으며 정상으로 회복했다고 하였다. 눈앞에서 나타난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한 정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파룬따파가 또 한번 어린 손자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였다. 사후에 의사와 이 일을 이야기하였더니 의사는 이 병은 아주 위험롭기에 제때에 구급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였다.

두 차례 혜택을 받고 나서 정의의 온 가족은

다. 어린 손자가 《와》 하고 울기 시작하더니 얼굴에 홍조가 비졌다. 얼마 안 지나 어린 손자는 마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즐겁게 뛰어다녔다. 늙은 양주는 놀랍고도 기뻐으며 몹시 격동되었다. 그들은 내심으로부터 어린 손자를 구해준 파룬따파에 감사를 드렸다.



또 어느 한번, 야밤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린 손자가 급성후두염에 걸렸는데숨이 막혀 얼굴은 자줏빛이 나고 이제 곧 숨을 들이쉴 것 같지 못하여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정의는 듣고 나서 인츰 아들의 집으로 향하였다. 도중에 정의는 또다시 파룬따파를 생각하고 길을 걸으면서 《파룬따파는 좋다》를 넘하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대법 사부님께 자신의 어린 손자를 구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아들의 집에 이르자 며느리는 아이가 갑자기 울지도 않고 숨도 가쁘지 않으며 정상으로 회복했다고 하였다. 눈앞에서 나타난 이 모든 사실을 목격한 정의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파룬따파가 또 한번 어린 손자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였다. 사후에 의사와 이 일을 이야기하였더니 의사는 이 병은 아주 위험롭기에 제때에 구급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였다.

두 차례 혜택을 받고 나서 정의의 온 가족은

편은 경상적으로 나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몰래 눈물을 흘렸다.

2008년 10월의 어느 하루, 우리 집의 먼 친척벌 되는 동생이 나에게 말하였다. 《언니,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나를 거예요.》 어려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었기에 글을 몰라 잘 읽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고 나는 한번 또 한번 열심히 읽었다.

기적이 나타났다. 마치도 어떤 사람이 근육덩어리에서 밖으로 무언가 집어내는 것처럼 움찔움찔하였다. 나는 더럭 겁이나 동생을 찾아가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그녀는 사부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시작하였는데 나를 도와 신체를 청리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나는 너무 기뻐 남편과 같이 읽기 시작하였다. 닷새 되는 날, 나를 극도로 괴롭히던 근육덩어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빨리 보세요. 나의 근육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남편도 기뻐하며 말하였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오!》

이때로부터 나의 오른쪽 다리는 땅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다시는 발뒤축으로 뛰



편은 경상적으로 나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몰래 눈물을 흘렸다.

2008년 10월의 어느 하루, 우리 집의 먼 친척벌 되는 동생이 나에게 말하였다. 《언니,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나를 거예요.》 어려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할 수 없었기에 글을 몰라 잘 읽지 못하였다. 그러나 내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고 나는 한번 또 한번 열심히 읽었다.

기적이 나타났다. 마치도 어떤 사람이 근육덩어리에서 밖으로 무언가 집어내는 것처럼 움찔움찔하였다. 나는 더럭 겁이나 동생을 찾아가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그녀는 사부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시작하였는데 나를 도와 신체를 청리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나는 너무 기뻐 남편과 같이 읽기 시작하였다. 닷새 되는 날, 나를 극도로 괴롭히던 근육덩어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하였다. 《빨리 보세요. 나의 근육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남편도 기뻐하며 말하였다. 《파룬따파는 참으로 신기하오!》

이때로부터 나의 오른쪽 다리는 땅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다시는 발뒤축으로 뛰



신이 성심으로 경건하게 읽을 때 당신은 곧 분복을 받을 것이며 기적은 마찬가지로 당신에 몸에서 나타날 것이다. 보증코 이러할 것이다.

근육덩어리가 사라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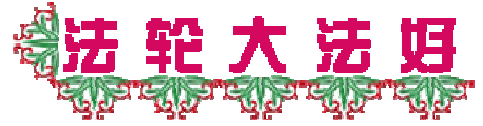
나는 문화라고 부르고 위해시 초묘자진의 촌민이며 금년에 56 세이다. 2006 년 말,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대퇴 골에 균열이 생기며 탈구되었다. 나는 문등중심병원에 보내져 9 천원의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의 오른 다리는 땅을 디딜 수 없어 발뒤축으로 한걸음씩 뛰 어다녔다. 얼마 후, 나의 오른쪽 대퇴 골 아래에 커다란 육종이 자라났다.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의 커다란 근육덩어리였는데 날마다 더 크게 자라났다. 그것이 다리를 압박하여 길을 걸을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잠 잘 수도 없었다. 나는 날마다 잠을 잘 때면 엎드려서 잤는데 두 팔은 뒤쪽으로 해서 위를 향하여 마치 직승비행기 같기도 하고 체벌을 받는 것 같기도 했다. 반듯이 누우면 다리를 펼 수 없고 왼쪽으로 누우면 고통을 참을 수 없었으며 오른쪽으로 누우면 너근 남짓한 커다란 근육덩어리가 나를 죽기보다 못하게 하였다. 나는 시종 눈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살았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였다. 남

신이 성심으로 경건하게 읽을 때 당신은 곧 분복을 받을 것이며 기적은 마찬가지로 당신에 몸에서 나타날 것이다. 보증코 이러할 것이다.

근육덩어리가 사라지다

나는 문화라고 부르고 위해시 초묘자진의 촌민이며 금년에 56 세이다. 2006 년 말,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대퇴 골에 균열이 생기며 탈구되었다. 나는 문등중심병원에 보내져 9 천원의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의 오른 다리는 땅을 디딜 수 없어 발뒤축으로 한걸음씩 뛰 어다녔다. 얼마 후, 나의 오른쪽 대퇴 골 아래에 커다란 육종이 자라났다. 확실하게 말하면 하나의 커다란 근육덩어리였는데 날마다 더 크게 자라났다. 그것이 다리를 압박하여 길을 걸을 수 없었고 정상적으로 잠 잘 수도 없었다. 나는 날마다 잠을 잘 때면 엎드려서 잤는데 두 팔은 뒤쪽으로 해서 위를 향하여 마치 직승비행기 같기도 하고 체벌을 받는 것 같기도 했다. 반듯이 누우면 다리를 펼 수 없고 왼쪽으로 누우면 고통을 참을 수 없었으며 오른쪽으로 누우면 너근 남짓한 커다란 근육덩어리가 나를 죽기보다 못하게 하였다. 나는 시종 눈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살았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였다. 남

대법구결이 중생을 구한다는데 대해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법을 더한층 공경하게 되었다. 정의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그의 온 가족이 혜택을 본 사실을 창주의 고향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성심으로 늘 《대법이 좋다》를 읽고 생명이 평안하고 분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대법을 존경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유쾌하기를 축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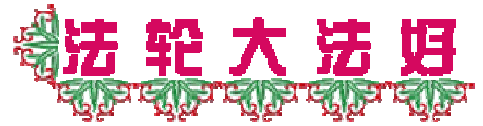


위험에 부딪쳐도 전화위복하다

장복(가명)은 하북 울현성에 살고 있다. 2008 년 10 월 12 일, 일가족은 자가용차를 몰고 대남산 초구보향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보러 갔다.

가는 도중에 마천령을 경과해야 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마천령을 넘는 길이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히 령북은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가파로와 경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곤 하였다.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무릇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차를 버리는 것은 물론

대법구결이 중생을 구한다는데 대해 믿어 의심치 않으며 대법을 더한층 공경하게 되었다. 정의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그의 온 가족이 혜택을 본 사실을 창주의 고향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성심으로 늘 《대법이 좋다》를 읽고 생명이 평안하고 분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모두 대법을 존경하고 온 가족이 행복하고 유쾌하기를 축복한다.



위험에 부딪쳐도 전화위복하다

장복(가명)은 하북 울현성에 살고 있다. 2008 년 10 월 12 일, 일가족은 자가용차를 몰고 대남산 초구보향에 있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보러 갔다.

가는 도중에 마천령을 경과해야 했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마천령을 넘는 길이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별히 령북은 도로가 구불구불하고 가파로와 경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곤 하였다.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후과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무릇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차를 버리는 것은 물론

이고 살아남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장복의 일가가 돌아오는 길에 마천령을 경과할 때는 바로 황혼 무렵이었다. 그들이령남으로부터 올라와 령북을 내리는 길에 들어서자 차속은 급격히 빨라졌다. 직업과 안전의 본능으로 장복은 브레이크를 밟아 차 속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이미 브레이크가 통제가 안됨을 발견하였다. 내리막을 달리는 차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일가 다섯 식솔의 생명은 경각에 달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위급한 관두에 그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친척이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위급한 시각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전화위복할 것이다.

이리하여 일가 다섯 식솔은 차에서 한번 또 한번 소리 높여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삼시간에 일종 무형의 힘이 그들 매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듯싶었다. 바로 이때 앞에 위험한 차를 대피하는 안전한 곳이 나타났다. 장복은 즉시 통제를 잃어버린 차를 순리롭게 그곳까지 몰고 갔다.



이고 살아남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

장복의 일가가 돌아오는 길에 마천령을 경과할 때는 바로 황혼 무렵이었다. 그들이령남으로부터 올라와 령북을 내리는 길에 들어서자 차속은 급격히 빨라졌다. 직업과 안전의 본능으로 장복은 브레이크를 밟아 차 속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이미 브레이크가 통제가 안됨을 발견하였다. 내리막을 달리는 차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일가 다섯 식솔의 생명은 경각에 달하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 위급한 관두에 그들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친척이 알려주던 말이 생각났다. 위급한 시각에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으면 전화위복할 것이다.

이리하여 일가 다섯 식솔은 차에서 한번 또 한번 소리 높여 외쳤다: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 삼시간에 일종 무형의 힘이 그들 매 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듯싶었다. 바로 이때 앞에 위험한 차를 대피하는 안전한 곳이 나타났다. 장복은 즉시 통제를 잃어버린 차를 순리롭게 그곳까지 몰고 갔다.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세요.》하고 말하였다. 이튿날, 나는 고향사람을 찾아갔다. 내가 말한 사실의 경과와 감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말하였다. 《나는 다만 자네에게 진상을 이야기 했을 뿐이네. 자네는 나에게 감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대법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네. 사부님만이 자네를 구할 수 있네.》

그때로부터 나와 나의 아내는 모두 《전법륜》을 학습하고 사부님의 설법록음을 듣기 시작하였으며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하루 저녁, 아내는 《전법륜》을 보다가 지치고 곤하여 책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사부님께서 온밤 그녀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록음과 같았다고 하였다. 또 그녀더러 심성을 잘 수련하여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셨다.

나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나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려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을 구해주신 사부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나에게는 아주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작은 아이는 이제 여덟 개월밖에 안 된다. 만일 내게 일이 생기면 이 가정도 끝인 것이다.) 현재 나의 생활은 아주 좋으며 장사도 아주顺利롭다.

친구여, 내가 한 말은 천만 정확한 말이다. 꼭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기억하라. 당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세요.》하고 말하였다. 이튿날, 나는 고향사람을 찾아갔다. 내가 말한 사실의 경과와 감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말하였다. 《나는 다만 자네에게 진상을 이야기 했을 뿐이네. 자네는 나에게 감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대법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네. 사부님만이 자네를 구할 수 있네.》

그때로부터 나와 나의 아내는 모두 《전법륜》을 학습하고 사부님의 설법록음을 듣기 시작하였으며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하루 저녁, 아내는 《전법륜》을 보다가 지치고 곤하여 책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사부님께서 온밤 그녀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록음과 같았다고 하였다. 또 그녀더러 심성을 잘 수련하여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셨다.

나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나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려다. 여기에서 나는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을 구해주신 사부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 (나에게는 아주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작은 아이는 이제 여덟 개월밖에 안 된다. 만일 내게 일이 생기면 이 가정도 끝인 것이다.) 현재 나의 생활은 아주 좋으며 장사도 아주顺利롭다.

친구여, 내가 한 말은 천만 정확한 말이다. 꼭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기억하라. 당

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되 특별히 곤란에 봉착했을 때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또 나더러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하였는데 나는 탈퇴하는데 동의하였었다.

나는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갑자기 또 한번 커다란 소리와 함께 눈부신 불꽃이 나의 신변에서 나타났다. 나의 신체와 삼륜차는 같이 뛰어올랐다. 뒤이어 나는 땅에 떨어져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길가던 사람들은 놀라 새된 소리를 질렀고 주위에 몰려들었다. 나는 낮 색이 노랗게 되고 입으로 누런 물을 토해 내었다. 나는 대뜸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의식했다. 몸을 살펴보니 머리카락 한 오리도 상하지 않았다. 몰려든 사람들은 나에게 병원으로 가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내심으로부터 무척 감격하였다. 나는 땅에서 일어나 평시와 마찬가지로 삼륜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아내에게 이야기 하자 아내는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감격해서인지 울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그 고향사람에게



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되 특별히 곤란에 봉착했을 때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또 나더러 사당의 조직에서 탈퇴하라고 하였는데 나는 탈퇴하는데 동의하였었다.

나는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묵념하였다. 갑자기 또 한번 커다란 소리와 함께 눈부신 불꽃이 나의 신변에서 나타났다. 나의 신체와 삼륜차는 같이 뛰어올랐다. 뒤이어 나는 땅에 떨어져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길가던 사람들은 놀라 새된 소리를 질렀고 주위에 몰려들었다. 나는 낮 색이 노랗게 되고 입으로 누런 물을 토해 내었다. 나는 대뜸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의식했다. 몸을 살펴보니 머리카락 한 오리도 상하지 않았다. 몰려든 사람들은 나에게 병원으로 가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별일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을 알았다. 나는 내심으로부터 무척 감격하였다. 나는 땅에서 일어나 평시와 마찬가지로 삼륜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아내에게 이야기 하자 아내는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감격해서인지 울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그 고향사람에게



참으로 위험하였다! 매 사람의 눈에서는 모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대법의 사부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는 외침소리는 오래도록 마천령의 상공에서 울려 퍼졌다.

이것은 참으로: 일가 다섯 식솔이 법을 믿고 법을 공경하니 신불이 보호하여 전화위복 한 것이다.

생질의 몸에서 발생한 기적

나는 하북의 대법 로제자이다. 수련을 시작한 후, 많은 신기한 일들이 우리 집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 얼마 전 나의 11 살에 난 생질이 봉착한 일이 가장 신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중추절에 생질은 많은 게를 먹었는데 이 게들은 그다지 신선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 안되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토하고 싶어하더니 위생실에 달려들어가 토하고 설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였다. 만져보니 온몸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고 입술은 한 점의 피기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 떨어

참으로 위험하였다! 매 사람의 눈에서는 모두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기뻐하며 말하였다. 《대법의 사부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는 외침소리는 오래도록 마천령의 상공에서 울려 퍼졌다.

이것은 참으로: 일가 다섯 식솔이 법을 믿고 법을 공경하니 신불이 보호하여 전화위복 한 것이다.

생질의 몸에서 발생한 기적

나는 하북의 대법 로제자이다. 수련을 시작한 후, 많은 신기한 일들이 우리 집에서 발생하였다. 그 중 얼마 전 나의 11 살에 난 생질이 봉착한 일이 가장 신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중추절에 생질은 많은 게를 먹었는데 이 게들은 그다지 신선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 안되어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토하고 싶어하더니 위생실에 달려들어가 토하고 설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였다. 만져보니 온몸이 얼음덩이처럼 차갑고 입술은 한 점의 피기도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이마에서는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 떨어

어졌다. 더욱이 얼굴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차를 불러 병원에 간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였다. 나는 대뜸 사부님께 보호를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이를 침대에 안아다 눕히고 성심으로 공경스럽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이때 아이는 근본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나의 남편과 딸애도 모두 대법제자인지라 나와 같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대략 5 분이 지나 아이는 신음소리를 멈추고 입술이 점차적으로 홍조를 띠더니 아주 빨리 위험기를 넘겼다. 얼마 안되어 아이는 조용하게 잠이 들었다. 대략 한 시간 후, 아이는 깨어나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연히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날 수 없었다. 나는 진상 소책자를 가져다 그에게 주면서 자기 절로 읽으라고 하였다. 또 몇 분이 지나 아이는 침대에 앉아 결인을 하고서 나에게 이렇게 련공하는 가고 물었다. 나는 《맞아! 계속 읽으렴. 좀 지나면 다 나을 거다.》라고 하였다. 과연 2 분이 지나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러 객실로 달려 나왔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다!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때로부터 대법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 온 가족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게 되기를 희망하며 사당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고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기억하여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건강을 소유하기를 희망한다.

대법이 나와 나의 가족을 구하였다

나의 이름은 소량(가명)이라고 부르며 금년에 30 세이다. 집은 산동의 시골에 있는데 지금 객지의 한 도시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다. 최근 나의 몸에서 발생한 한가지 일은 나를 평생토록 잊을 수 없게 한다.

금년 음력 7 월 14 일 오후 두시 좌우, 나는 과일을 다 팔고 나서 삼륜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는 작은 비가 내리면서 우리소리가 연이었고 특별히 소리가 높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두려웠다. 마침 큰길 복판에서 가고 있는지라 숨을 곳도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나는 갑자기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고향 사람이 나에게 성심으로 공경스럽게 《파룬따파

어졌다. 더욱이 얼굴표정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하에서 차를 불러 병원에 간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하였다. 나는 대뜸 사부님께 보호를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아이를 침대에 안아다 눕히고 성심으로 공경스럽게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이때 아이는 근본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나의 남편과 딸애도 모두 대법제자인지라 나와 같이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읽었다.

대략 5 분이 지나 아이는 신음소리를 멈추고 입술이 점차적으로 홍조를 띠더니 아주 빨리 위험기를 넘겼다. 얼마 안되어 아이는 조용하게 잠이 들었다. 대략 한 시간 후, 아이는 깨어나 음식을 먹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의연히 머리가 어지러워 일어날 수 없었다. 나는 진상 소책자를 가져다 그에게 주면서 자기 절로 읽으라고 하였다. 또 몇 분이 지나 아이는 침대에 앉아 결인을 하고서 나에게 이렇게 련공하는 가고 물었다. 나는 《맞아! 계속 읽으렴. 좀 지나면 다 나을 거다.》라고 하였다. 과연 2 분이 지나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러 객실로 달려 나왔다. 우리 온 가족은 모두 대법의 신기함을 견증하였다!

사부님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혜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때로부터 대법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우리 온 가족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게 되기를 희망하며 사당의 당, 단, 대에서 탈퇴하고 《파룬따파는 좋다, 진선인은 좋다》를 기억하여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건강을 소유하기를 희망한다.

대법이 나와 나의 가족을 구하였다

나의 이름은 소량(가명)이라고 부르며 금년에 30 세이다. 집은 산동의 시골에 있는데 지금 객지의 한 도시에서 과일장사를 하고 있다. 최근 나의 몸에서 발생한 한가지 일은 나를 평생토록 잊을 수 없게 한다.

금년 음력 7 월 14 일 오후 두시 좌우, 나는 과일을 다 팔고 나서 삼륜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에서는 작은 비가 내리면서 우리소리가 연이었고 특별히 소리가 높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당시 나는 마음속으로 아주 두려웠다. 마침 큰길 복판에서 가고 있는지라 숨을 곳도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나는 갑자기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고향 사람이 나에게 성심으로 공경스럽게 《파룬따파